

문무해중릉의 문화원형과 가치활용

Narrative archetype of the stone tomb of King Munmu of Silla and utilization of the values

저자 (Authors)	이창식 Lee, Chang-sik
출처 (Source)	신라문화 44 , 2014.08, 115-142(28 pages) 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SILLA CULTURE 44 , 2014.08, 115-142(28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97024
APA Style	이창식 (2014). 문무해중릉의 문화원형과 가치활용. 신라문화, 44, 115-14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0/16 11:2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문무해중릉의 문화원형과 가치활용

이 창 식*

<目 次>

I. 머리말	III. 신라 해중릉의 가치와 서사전승물의 활용
II. 신라 이견대와 문무대왕암 관련 문화원형	IV. 맺음말(제안)

[국문초록] 「이견대가(利見臺歌)」와 만파식적(萬波息笛) 설화는 현존 문무왕릉과 함께 해신(海神)으로서 용신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다. 신라 문무왕이 죽어서 호국용(護國龍)이 되었다는 봉길리 '대왕암'이 확인되었고, 그 곳을 제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견대(利見臺)가 발굴 복원되었다. 그러나 복원 장소는 일부 오류가 보이는데, 바로 잡아야 이른바 해중릉 제의공간이 완성된다. 감은사에서 용이 드나들던 '금당(金堂) 통로'도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신문왕과 문무왕의 교감방식이 수록제적 성격을 지닌다. 더구나 동해 대왕암은 석굴암 동해 일출지와 일치하여 국토경영의 장엄을 보였다. 경주 월성 조성원리 마인드와 연관하여 감은사지(感恩寺址)-이견대-대왕암 문화벨트는 매우 상징적이다.

신문왕(687~692)은 문무왕 대왕암에서 신라 보물 만파식적을 구한다. 신라종(新羅鐘)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종두의 용트림 원통과 만파식적이 상통하는 개연성도 있다. 해중릉, 그 깊은 가치는 감은사와 용소, 용당, 이견대와 연계하여 조성되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해신 신앙과 호국의식이 상생되어 디자인된 최초의 해신묘역, 호국성지인 셈이다. 이는 용왕신인 해신의 중심지다. '감은사지-대왕암-이견대의 지리적 공간의 의미, 성역화의 목적 및 그 형상에 관한 내력은 해신의 진실성 드러내기인 동시에 통일 문화콘텐츠로서도 우수한 서사원형이다. 세계에서 해중릉 문화콘텐츠의 잠재력은 최고로 평가한다. 앞으로 경주시에 대해 동해안 해중릉 해양문화유산의 주목하고 다양한 OSMU의 문화사업을 제안한다.

[영문초록] Tales of Igyeondaega(利見臺歌) and Manpasikjeok(萬波息笛) are important data to understand dragon god as a god of the sea as well as to understand the stone tomb of King Munmu. 'The stone of the king'-locally known as 'daeng stone'-has a story that King Munmu of

* 세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Silla became a dragon that protected the country after his death. And Igyeondae(利見臺), for commemorating the place, was discovered and restored. However there seems to be some errors regarding the location for restoration, which should be addressed for correction. 'Geumdang(金堂) passage', which was made for the dragon, was discovered in Gameunsa, therefore the way of communication of the dragon king should be interpreted from more diverse perspectives. Furthermore, location of the stone of the king in the East sea matches to the place of sunrise in the East sea. The location of Gameunsa-Igyeondae-the stone tomb of the king should be studied in connection to the building principle of Weolseong, Gyeongju.

King Shinmun(687-692) discovered the Silla's treasure, Manpasikjeok, from the stone tomb of the King Munmu. The form of a dragon twisting its body on top of the bell in the bell of Silla(新羅鐘) can be related to Manpasikjeok. The values of the underwater tomb can be related to Gameunsa, Yongso, Yongdang and Igyeondae. It can be considered as the first park of a god of the sea and the holy land to protect the country with a combined concept of a religion of sea gods and a sense of protecting the country. It is a mecca of a sea god, the god of the dragon king. The significance of 'Gameunsa location-the stone of the king-Igyeondae' in terms of geography, objectives of making the location as a holy land and history of transition of the place are excellent narrative archetypes as cultural contents, as well as provide us the story of the sea god. It would not be an exaggeration to state that the potential of the underwater tomb as a cultural content is the greatest in the world. City of Gyeongju should also pay attention to the maritime heritage in the East sea.

[주제어] 이견대가(Igyeondaega), 만파식적(Manpasikjeok), 문무왕릉(King Munmu of Silla), 감은사지(Gameunsa), 신문왕(King Shinmun), 해중릉 문화콘텐츠(cultural contents)

I . 머리말

통일신라기 신문왕 때 바다에 장사지내라는 유언에 의해 최초 호국형 해중공원이 조성된다. 이견대는 사후 문무왕 곧 상상 속의 용왕을 알현하고 제사하던 곳이다. 이견대의 방향은 당연히 문무왕 해중릉인 대왕암으로 향해 있다. 문무왕비문에 나오는 “경진-고래나루-에 뺏가루를 날리셨네”라는 문구의 의미는 동해 바다에 뺏가루를 날렸다는 역사적 사실적 뜻 외에 문무왕의 영혼이 태양이 떠오르는 부상(扶桑)으로 가서 해신(海神)이 되었다는 관념상의 뜻이 있다. 이는 역사적 사실과 구술적 전승이 맞물려 오래 지속되고 있다.

문무대왕의 혼령은 유언대로 동해에 자리하고, 생전의 호국적 대승적 의지는 사후에도 호국의 상징신앙처로 강조되었다. 고대 신라인들에게 하천, 우물, 바다는 지하로 연결되어 있고 천제(天帝)의 아들인 용왕이 관장한다고 믿고,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제와 더불어 바다에 있는 용왕도 널리 숭배하였다. 한국인의 용왕 신앙은 문무왕 수록용왕재 곧 국행제 성격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국가의례의 장소성은 「이견대가」(不傳) 유형의 희락(戲樂)의 노랫말을 창작하였다.

천신-용왕 신앙관념은 각종 성역화 도시화 조경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경영원리는 궁중 옆에 상상 속의 용왕이 드나들 수 있는 우물을 팠고, 경주에 신월성을 축조하면서 대본리 월성 앞바다에 있는 천제의 아들인 용이 신월성 옆으로 와서 머무르기 편하도록 대본리 월성 주변의 지형을 본떠 신월성 동쪽에 연못 곧 월지(안압지)을 만들었다. 문무왕은 삼국을 통일한 후 천제의 아들인 용이 신라를 잘 지켜달라고 기원하는 마음에서 재위 14년(A.D 674년) 2월에 연못을 확장하여 산을 만들고 화초를 심고 진기한 새와 짐승을 길러 용의 거처를 더욱 화려하게 꾸며주고, 이곳에서 용이 신라를 보호하여 달라고 용왕에게 제사를 지냈다. 고대 신앙을 신봉한 신라인들은 문무왕이 죽은 후 용이 되어 왜가 신라의 수도로 쳐들어오는 통로인 봉길리, 대본리 월성 앞바다에 있으면서 왜를 막아달라고 월성 앞바다에 문무왕의 수중릉을 만들었다.¹⁾

「이견대가(利見臺歌)」와 만파식적(萬波息笛) 설화는 현존 문무왕릉과 함께 해신으로서 용신의 성격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다.²⁾ 신라 문무왕이 죽어서 호국룡(護國龍)이 되었다는 대왕암 - 봉길리 현지에서는 ‘땡바위’라고 함 - 이 확인되었고, 그곳을 제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견대(利見臺)가 발굴 복원되었다. 그러나 복원 장소는 일부 오류가 보이는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감은사에서 용이 드나들던 금당(金堂) 통로도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용왕의 교감방식을 입체적으로 읽어야 한다. 더구나 동해 대왕암은 석굴암 동해 일출지와 일치한다. 경주 월성 조성원리 마인드와 연관하여 감은사지(感恩寺址) - 이견대 - 대왕암을 성찰해야 한다.

신문왕(687-692)은 문무왕 대왕암에서 신라 보물 만파식적을 구한다. 신라종(新羅鐘)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종두의 용트림 원통과 만파식적이 상통하는 개연성도 있다. 해중릉, 그 깊은 가치는 감은사와 용소, 용당, 이견대와 연계하여 조성되었

1) 황수영, 「신라범종과 萬波息笛 說話」, 『신라문화』 1집,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84.

2) 이창식, 「利見臺歌와 ‘萬波息笛’ 說話의 性格」, 『東國語文論集』 4집, 동국대 국문과, 1991, pp. 177~197.

다. 역사적으로 해신신앙과 호국의식이 상생되어 디자인된 최초의 해신묘원, 호국 해양성지인 썸이다. 용왕신인 해신의 메카이다. 감은사지 - 대왕암 - 이견대의 지리적 공간의 의미, 성역화의 목적 및 그 형상에 관한 내력은 해신의 진실성 드러내기인 동시에 문화콘텐츠로서도 우수한 서사원형이다. 세계에서 해중릉 문화콘텐츠의 잠재력은 최고가 아닌가 한다. 이 글에서는 경주시도 동해안 해양문화유산을 주목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그 당위성을 다루고자 한다.

II. 신라 이견대와 문무대왕 관련 문화원형

용이 된 아버지를 기리고 통일 성취 대왕으로서 선왕을 제사하고 불교식으로 친견하던 이견대다. 이견대는 용이 되었던 아버지 문무왕을 바라보았던 곳이면서 제장이다. 수륙대제 속의 「이견대가」를 불렀던 제의 공간일 터인데 그 노랫말인 「이견대가」 - 신라 제향형 향가로 추정함 - 가 전해지지 않는다.³⁾ 일연(一然)은 『삼국유사』권2 기이 만파식적 조에서 감은사 기록을 인용하여 ‘이견대’의 실상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가) 문무왕이 왜병을 진압하려고 이 절을 세우다가 끝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바다의 용이 되었다. 그 아들 신문왕이 왕의 자리에 올라 개요 2년에 완공했다. 금당 계단 아래에 동쪽을 향해 구멍을 하나 뚫어 두었다. 용이 절에 들어와 돌아다니게 하기 위해서였다. 유언에 따라 유골을 간직한 곳은 대왕암이라 하고, 절 이름은 감은사라 하며, 뒤에 용이 나타난 것을 본 곳은 이견대라 했다.⁴⁾

(나) 대왕은 나라를 다스린 지 21년 되는 영류 2년 680년에 세상을 떠났다. 유언에 따라 동해 가운데 있는 큰 바위 위에 장례를 지냈다. 왕은 평시에 늘 지의법사에게 말했다. “나는 죽은 다음에 호국에 큰 용이 되어 불법을 받들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소원이요.” 법사가 말했다. “용이 짐승이니 어찌 그 응보를 받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나는 세간의 영화에 대하여 염증을 느낀 지 오래되었다. 만약 추한 응보로 짐승이 된다면 나의 뜻에 맞노라.”⁵⁾

3) 이창식, 「‘利見臺歌와 萬波息笛」, (東大新聞 제890호, 1984. 6. 26자) 참고.

4) 寺中記云 文武王欲鎮倭兵, 故始創此寺 未畢而崩 爲海龍 其子 神文立 開耀二年畢 排金堂砌下 東向開一穴 乃龍之入寺 族繞之備 蓋遺詔之藏骨處 名大王巖 寺名感恩寺 後見龍現形處 名利見臺. 『三國遺事』 권2 紀異.

5) 大王 御國二十一年 以永隆二年 辛巳 崩 遺詔葬於東海中大巖上 王平時當謂智義法師曰

(다) 제31대 신문대왕은 이름이 정명이요 김씨다. 개요 원년 681년 7월 7일에 왕위에 올랐다. 아버지 문무대왕을 위하여 감은사를 동해변에 세웠다.⁶⁾

문무왕을 신격화하여 모신 원찰이 감은사(나)이며, 문무왕의 무덤 장소성은 대왕암으로서 수중에 있으며, 용이 된 왕을 본 곳이 이견대(가)라는 기록이다. 『고려사』악지(樂志) 제2 속악조, 『세종실록』권 150 지리지 경주부조에도 보인다. 이견대는 대왕암이 잘 보이는 곳이며, 이곳에서 신문왕이 부왕인 문무왕을 추모하기 위하여 생시처럼 만남을 노래한 「이견대가」인 것이다. 「이견대가」는 오래도록 보지 못하고 그리워하던 신라왕 부자가 이견대에서 재회하여 기쁨을 노래한 것이다. 이 노래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견대는 발굴되어 그곳에 복원하였다.

(나)의 ‘호국대왕’과 (다)의 ‘문무대왕’은 동격인데 불교적인 취향에 의해 불교의 용으로 신격화되었다. 그런데 승봉불법 수호방가(崇奉佛法 守護邦家) 곧 불법을 숭상해 받들며 나라를 수호한다고 하였다. 호국대룡을 강조함으로써 인격-용신-해신의 신격화가 제의로서 나타난 것은 문무왕-신문왕대부터가 아닌가 한다. 불교적인 용이 됨으로써 인위적인 의식이 신성시하는 단계에까지 올라간 것이다. 구체적으로 왜병을 진압하기 위해 감은사를 짓다가 마치지 못하고 죽으면서 ‘해룡’이 되겠다고 했으니 정치성을 강조한 이야기다. 문무왕이 생각했던 절은 진국사였고, 아들 신문왕 때에 완성하여 부왕을 ‘감은(感恩)’한다고 하여 감은사라고 한 것이다. 결국 (나)와 (다)는 삼국통일 후 최대의 위협이었던 동해구를 ‘진수’하기 위하여 문무왕이 손수 택한 장소였고, 신문왕이 감은사를 완성하여 성역화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와 (다)는 기록한 부분이 다르지만 (나)는 (다)의 감은사 창건에 대한 필연적 동기를 부여하는 단락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단락 이후의 ‘만파식적’ 담은 독립된 서사구조로 이해해야 하고, 만파식적과 ‘흑옥대(黑玉帶)’를 중심한 신문왕의 이야기로서 역사적 진실성을 드러내고 있다.

관련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다. 문무왕이 당과 연합해 고구려를 멸했다. 당이 신라를 도모하자 문무왕이 군대를 일으켰다. 당 고종(高宗)이 김인문(金仁問)을 옥에 가두고 신라를 치려했다. 의상(義湘)이 당의 공세를 문무왕에게 고했다. 문무왕이 명랑(明朗)에게 도움을 청했다. 명랑이 해룡(海龍)이 전수한 비법으로 절, 신상(神像)을 만들자 당선(唐船)이 침몰하였다. 후에 절을 고쳐 사천왕사(四天王寺)라

朕身復原爲國大龍 崇奉佛法 守護邦家 法師曰 龍爲畜報何 王曰 我狷世間榮華久矣 若應報爲畜 則雅合朕懷矣, 『三國遺事』 권2 紀異 文虎王法敏.

6) 第三十一神文大王諱政明 金氏 開繞元年 辛巳七月七日 卽位爲聖考文武大王 創感恩寺於東海邊, 『三國遺事』 권2 紀異 萬波息笛.

고 했다. 당이 재차 침략했다. 명랑이 비법을 재차 사용하자 당선이 침몰했다. 당 고종이 박문준(朴文俊)에게 신라의 비책을 물었다. 박문준이 거짓으로 대답해 당 고종이 그 절을 살피려 했다. 문무왕이 거짓이 탄로날까 하여 다른 절을 짓고 기다렸다. 중국 사신이 와서 보고 거짓 사천왕사임을 알았다. 국인(國人)이 중국 사신에게 뇌물을 주어 거짓으로 보고하게 했다. 이에 새 절을 망덕사(望德寺)라 했다. 문무왕이 당에 김인문의 사면을 요청했다. 국인(國人)이 김인문을 위해 인용사(仁容寺)를 짓고 관음도량(觀音道場)을 개설했다. 김인문이 귀국 도중 해상에서 죽자 미타도량(彌陀道場)이라 개칭했다. 문무왕이 동해중(東海中)의 큰 바위에 장사지내 달라고 유언했다. 문무왕은 죽은 후에 호국대룡이 되어 호법(護法), 호국하겠다고 했다. 지의(智義)는 용이 축생(畜生)이라 하며 이를 회의(懷疑)했다. 문무왕은 축생이 되어 거칠게라도 갓겠다고 했다. 결국 문무왕이 설화 문면의 주체자로서 신라의 평온을 위해 스스로 용이 되어 신라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고유의 용신사상(龍神思想)과 불교의 호법사상(護法思想)이 결합되어 호국용사상으로 전승된다. 견룡현형처(見龍現形處)인 이견대는 고대(高臺)가 아닌 복원된 장소처럼 바닷물 가까이 위치한 것은 모순이다. 『고려사』 기록대로라면 왕의 부자(父子)가 「재봉가(再逢歌)」로 불리울 정도로 상봉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 『삼국유사』 「만파식적」조에 이견대란 지명은 나오면서 그 노래는 채록되지 않아 아쉽다. 「이견대가」에 연유된 가명의 작자는 신라왕 부자라고 했다. 신라왕들 중에서 부자가 상견(相見)할 만한 내력을 지닌 사례는 문무왕 - 신문왕대 이외 없다. 두 왕이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세종실록』이나 『동국여지승람』 경주 이견대조에 보듯이 화룡(化龍)이 되어 수장된 문무왕과의 상봉이라고 볼 수 있다. 곧 돌아가신 왕과 살아서 추모하는 신문왕과의 상봉이다. 그때 불려진 기쁨의 노래가 「이견대가」라고 설정할 수 있다.

「이견대가」가 불려진 연대는 우선 신문왕대로 볼 수 있고, 서기 682년에서 690년 사이로 추단된다. 그 작자 역시 신문왕이라고 볼 수 있고, 신문왕이 이견대에서 문무대왕임을 바라보며 호국용이 되어 나타난 문무왕과의 재회를 가상적으로 기쁨에 따라 부른 것이다. 그때 부른 여러 편 가운데 어느 편을 후대에 「이견대가」라고 했을 것이다. 수륙대제의 용신곳에 불려진 노래다. 「가락국기」의 사모지사(思慕之事)인 셈이다. 감은사와 함께 이견대도 문무왕의 생전에 이미 세우기 시작하였지만 신문왕대에 그 축대를 완성하고 그곳에서 화룡한 부왕을 바라보며 부왕을 추모한 성소(聖所)라고 볼 수 있다. 문무왕을 위해 행사하던 제의적 성소인 것이다.

분명히 대는 대왕암을 향하여 축대되었을 것이고, 정북향의 암두(巖頭)에 있다고 전해왔다. 그런데 복원된 이건대는 바닷물부터 20m 떨어진 대본리(臺本里) 동구(洞口)에 자리잡고 있다. 문헌에서와 같이 대왕의 치적을 기리고, 왕이 화룡된 곳인 대왕암을 바라보았던 이건대 장소라고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무엇보다 이 건대의 위치는 문무왕의 해중(海中)이 보이는 곳이면서 제(祭)를 올릴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문무왕의 수중릉 대왕암은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앞바다에 있는데 속칭 ‘댕바위’라고 한다. 구전에도 ‘댕바우’라고 하고,⁷⁾ 이것은 ‘대왕바위’에서 형태가 줄어진 말로 ‘해신무덤’의 뜻을 가지고 있다.⁸⁾

우리 눈에 아까 발굴했다고 했지요? 그 다음부터 대왕암이라고 했지. 그 전에는 대왕바위, 댕바위라고 했지. 전에는 왕릉이라는 말은 못 들었어요.⁹⁾

예전에는 댕방돌이라고 했어요. 댕방돌. 댕방돌. 그래 박사들이 틀려요. 댕방돌 하나까. 큰 대 자가 들어가거든. 그래 인자 바위 암 자가 빠졌단 말입니다. 북판에 바위 암 자가. 대왕암인데. 지금은 대왕암인데. 그 분들이 조사를 와가, 다 해가 똑바로. 이거는 댕방돌이 아니고 대왕암이다.¹⁰⁾

이 해중릉을 조망할 수 있는 장소가 이건대이며, 그 장소는 현재 복원된 이건대에서 250m 서방산상(西方山上)인 암두형(巖頭形)인 곳이다. 방위로 보면 대왕암에서 거의 서북방에 가까운 지점에 있는데 속칭 ‘덤북재’라고 한다.¹¹⁾ 물론 이곳은 현재도 제의 공간을 갖춘 터가 남아 있고, 신라시대에서 고려·조선시대로 내려오면서 기우처가 되었을 것이고, 시인묵객이 탐방하던 이견원(利見院)으로도 되었을 것이다. 그만큼 관망하기 좋은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이른바 명당자리라고 불려졌다. 복원된 이건대가 있는 동네 이름이 대본리(臺本里)인데, 흔히 ‘臺[덕]밭’이라고

7) 1984년 현지조사 때 채록한 민요에도 ‘댕바우’라고 불리고 있었다. “바우 바우 댕바우/ 놀기 좋다 감불이야/그저 덕에 뵈다 덕산아/부부 부부 용부부”(제보자, 徐貞順, 女, 71세, 감포읍 대본3리 614 집, 1984년 1월 27일 채록)

8) 서정범, 「방언에서 본 만파식적과 문무왕릉」, 『한국민속학』 제8집, 민속학회, 1981, p. 94.

9) 제보자, 정유식(남, 72세, 경상남도 경주시 양북면 대본리), 2006년 03월 11일 현지조사.

10) 제보자, 김종대(남, 70세,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 2012년 04월 01일 현지조사.

11) ‘덤북재(듬북재)’라는 지명은 현지 주민을 통해 채록되었는데 그 어원은 분명치 않다. 다만 핵심 요소 ‘덤북’의 형태를 고려한다면, 이곳의 지세가 ‘뚝부기’의 형국을 닮았거나 아니면 뚝부기가 서식하는 곳을 의미할 수 있다. 다만 뚝부기는 절새라는 점에서 지명의 구성 요소가 되기 어렵다고 본다면, 전자의 관점에서 어원을 유추할 수 있겠다.

불린다. 현지 마을 사람들은 대밀 마을이라고 한다. 행정구획과 지도표기상 ‘대밀’을 ‘臺本’으로 표시한 것이다. 마을 뒷산에 이견대가 자리할 만한 공간이 있고, 기와 조각과 자기 파편들이 흩어져 있고, 복원된 이견대보다 산정(山頂)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더 넓은 곳이다.

이러한 공간적 배경과 아울러 동해구인 용당포 일대의 감은사, 이견대, 대왕암 등과 석굴암이 있는 토함산과 연결시키면 사각 방위의 입체를 이룬다. 이견대까지 고려해 넣는다면 오각 방위로 정점을 이룬다. ‘덤복제’의 이견대 장소에서 보면, 대왕암과 그 일대가 선명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감은사, 토함산, 용지가 각각 직선으로 표적되어 보이고 입체적인 공간 거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견대를 축대한 목적을 기록한 문헌과 일치하고 설치의 내용과도 잘 부합하고 있다.¹²⁾ 현재 복원된 이견대 장소는 당시 군사들이 지키던 진지이거나 감은사의 바다 입구 암자 역할을 하던 장소였을 것이다. 본래 이견대 터는 왜 등 외적을 경계하고 이 일대 성소 유적을 관리하던 해관소도 된다. 따라서 복원된 이견대의 발굴 과정에 대하여 재검토해야 할 것 같고, 감은사 일대의 ‘성소’ 차원으로 재해석해야 할 것 같다. ‘성소’ 만들기의 공간관념은 불국사 사상과 연관되어 신라 자체를 성화시키려는 위정자들의 목적의식에 부합되었다. 감은사의 창사담으로서의 대왕암 - 감은사 - 이견대 성소설화는 신라인의 정치적 공감대를 얻어서 지속성을 보여주는 일면이 있다.

들은 이야기는 내가 이래 듣고 있습니다. 듣건텐 괘능(掛陵), 저기를 문무왕이라 했다 카그던. 지금까지. 그런데, 내가 어릴 때 저거 듣고 있기를, 문무왕은 대본 끝에 거기 지금 대왕암이란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 거기에 수장을 했다꼬 이렇게 듣고 있어요. [들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왜 그러문 하필 물 가운데 바위를 대왕암이라 했느냐? 물론 큰 대(大)짜, 임금 왕(王)짜 대왕암(大王岩), 명칭을 붙칠 때는 반다시 거 무슨 유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을 부쳤잖나? 그래서 그 신라 30대 문무왕이, 31대가 신문왕이그던. 그래서 30대 문무왕이 임종시에, 나 이거 들은 말입니다. 전설에 본게 아이고. 임종시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은 지 칠일 만에 양복면 - 그때는 지금 무슨 면이라 했는지 모르지마

12) 박노춘은 「이견대가잡고」(『한국문화잡고』, 시인사, 1987), pp. 30~34에서 “「이견대가」는 만파식적을 얻었음을 기뻐한 노래이고, 이견대는 이 일을 기념하려고 축조한 것”이라고 했으나, 이 견해는 황폐강에 의해 비판되었다(황폐강, 『신라불교 설화연구』,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73 참조).

는 - 그 앞바다에 내가 나타나서, 왜적이 항상 침입하는 대소섬을, 크고 작은 섬을 치고 하늘로 올라갈 모아이까네. 나를 불러 카그딘, 풍파가 일어난지, 종식되는 칠일 만에 보며는 나를 불께다.”

이런 말을 했다 카그딘. 그래서 그 부왕의 참 유언대로 그 화자(火葬)을 해서 동해의 그 대왕암, 그 때는 무슨 바위라 불렀는지 모르지요. 그 바위에다 수자(水葬)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푸우(風雨)가 일어나고 며 형편이 없어요. 며 벼력이 치고 이레가주고 한 일 주일 동안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참 종식이 되는 칠일만에 거 가서, 임금이 앉는 자리를 이견대라고 합니다. 이견대. 거기다가 이제 임금이 친히 앉고. 그래 과연 보니 전일에 있던 대소 섬이없어지고, 그 요이 되서 하늘로 올라가더랍니다.

그래서 여 토정비결에 보면 비룡재천(飛龍在天)하니 의견대인(1) [주]대본리(臺本里)에 있는 이견대(利見臺)와는 글자가 틀린다. (宜見大人)이라, 용이 하늘로 올라가니 의견, 마따이 대인을 볼 것이다. 대인을 본다 카는 것은 자기 어른을 본다 이 말이라. 비룡재, 그래서 비룡재천의견대인이라 카는 말이 내가 들은 적이 있어. 옛날 노인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견대라는 대(臺)를 이제 그 수축해가 잘 만들어 놨습니다. 『대왕암과 이견대』(임재해 조사, 『한국구비문학대계』 7-2, pp. 718~719).

구전에는 이견대의 후대 수용양상이 보인다. 삼국통일을 한 문무왕의 유일한 격정거리는 왜적의 침입이었다. 문무왕은 호국용이 되어서 왜적을 막겠다고 유언했다. 유언에 따라 동해안의 대왕암에 장사를 지냈다. 문무왕의 유언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아들 신문왕이 감은사에 축수했다. 문무왕이 현몽하여 용이 되어 득천한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신문왕이 이견대를 쌓고 선왕의 득천을 지켜보았다. 문무왕이 용이 되어 득천하면서 동해의 열두 섬을 쳤다. 하늘에서 울릉도는 조선의 수구맥이라 하여 치지 못했다. 분명 구전자료에서 대왕 성지 인식이 보인다. 이를 문헌자료와 보강하여 읽으면 통시적 장소성의 수용양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 용왕 의식이 중심에 자리한다.

지역민들이 말한 대로 대본초등학교 뒤편 산정(‘등복재’, ‘등재’로 불림)에서 와편과 토기편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제보자에 따라 봉화대나 원래 이견대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현재 이견대가 위치한 인근 마을 이름이 이견대가 건립된 이후에 ‘대본’으로 바뀌었다.¹³⁾ 현재 감은사 터가 위치한 마을의 이름은 ‘탑마

13) 제보자, 김중대(남, 63세, 용당리 양촌서각연구실), 손해우(65세, 탑마을 이장), 2012년 03. 31-4. 1. 현지조사

을, 용당(龍堂)이라 불린다. 감은사 앞에 ‘용담(龍潭)’이라는 연못 터가 있어 이를 따서 ‘용담리’라고도 한다. 연못은 오래 전에 메워졌다. 그 깊이가 명주꾸리 하나 들어갈 정도라고 한다. ‘용담’ 앞에 있는 들은 ‘용담들’ 혹은 ‘감은들’로 불린다. 감은사 터 바로 밑에 용당이 있던 터를 ‘용맹이 들판, 용덩이 들판’으로 불렀다. 지역 민에 따르면 감은사의 쌍탑 그림자가 아침저녁으로 용담에 비친다는 설화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한다. 용당리 뒤편에는 6개의 골짜기 곧 큰밭골, 외밭골, 대밭골, 삼밭골, 웅골골, 개미골가 있다.¹⁴⁾

옛날 명주꾸리가 하나 풀렸다고 해서. 지금은 메아져서. 그거는 문무왕. 문무왕 때. 그기 말하자면 혼이. 문무왕이거든. 문무왕 때는 동해 바다. 용이 된다고 해서. 자기가 용이 되가지고. 감은사 밑에 물이 돌았어요.¹⁵⁾

용담이라는 데는 지금부터 몇 백 년 전에 명주꾸리미를 하나 풀었다고. 거기서 이제 감은사 밑에. 오백미터 밑에 예전에는 용담이라고.¹⁶⁾

이건대의 공간적 성격을 전제로 하여 『삼국유사』만파식적 조의 설화를 「이건대가」와 관련하여 신라인의 성소의식을 분명히 할 수 있다. 분명히 이 설화에 신문왕이 682년 5월 7일에 이견대로 ‘가행(駕幸)’하여 그곳에서 바다에 떠있는 작은 산을 바라보았다고 했다. 682년은 감은사가 창건된 해이다. 이 해에 이견대도 완성되었을 것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앞서 살핀 대로 「이건대가」는 신문왕대에 부른 노래라고 볼 수 있다. 왕이 동해변에 오면 숙소는 감은사가 되었고, 성고(聖考) 문무왕을 이 이견대에서 맞이하여 기쁨을 나누었을 것이다. 유골처를 바라보며 돌아가신 왕과 살아서 추모하는 왕과의 기쁨을 나누면서 부른 노래가 「이건대가」인 것이다. 그만큼 추모적인 ‘제의가’이다. 해중릉에 대한 제의공간에서 불려진 향가유산이다.

『삼국유사』제2권 기이 제2편에서 만파식적 설화를 기록하면서 「이건대가」는 삽입되지 않았다. 2권 제2편에 실린 신라가요는 「모죽지랑가」·「헌화가」·「처용가」·「찬기과랑가」·「안민가」·「서동요」 6편인데, 이들 노래는 일연이 찬했던 입장

-
- 14) 제보자, 김종대(남, 63세, 용당리 양촌서각연구실), 손해우(65세, 탑마을 이장), 2012년 03. 31-4. 1. 현지조사
- 15) 제보자, 한용기(남, 81세,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어일1리 마을회관), 2012년 03월 30일.
- 16) 제보자, 김상기(남, 89세,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대한노인회 양북지회), 2012년 03월 31일.

에 따라 삽입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견대가」는 일연의 의도에 따라 삽입되지 못했고, 후대에 「이견대가」 관련 설화만 전해지고 있다. 기이 제1의 ‘서(敍)’에서 보듯이 역사적 인물의 신이로움에 관점을 맞추고자 했던 일연의 의도가 작용한 탓이다.

대개 『삼국유사』 속의 설화는 ‘신성징래(神聖徵來) → 중재 → 탐색 → 실현’의 단계로 서사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단계에서 반드시 가요가 그 설화의 문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만 삽입시킨 것을 알 수 있다. ‘만파식적’ 설화에서 「이견대가」가 삽입되지 않은 것도 흑옥대(黑玉帶)와 만파식적에 대한 신이로움의 당위성을 서술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일연의 채록 인식을 압도했거나 구전 노랫말을 채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문왕과 그의 아버지인 동해용 문무왕과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였지만 용이 바친 것을 만파식적이라 이름하고 국보로 칭한 문제가 우선하고 있다. 만파식적 인식은 정치적인 함축성을 강조한 신물(神物)인 것이다.

신문왕의 신비체험도 해관(海官), 일관(日官), 사자(使者), 용(龍), 태자(太子) 등을 통해 여론 형성의 방식으로 객관화시키고 있다. 용이 말한 “비유컨대 한 손으로 손뼉을 치면 소리가 없고, 두 손으로 쳐야 비로소 소리가 나는데, 이 대나무도 물건이라 합쳐진 연후에야 소리가 납니다.”라는 서술은 ‘소리’ 곧 여론을 강조한 것이며 신문왕이 문무왕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만파식적이 지닌 정치적 의미는 전체 설화의 문맥에서 재해석할 필요성을 지닌다. 소리를 강조한 만파식적의 신물은 정치성의 성현을 발하는 매개체로써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 문무왕이 늘 “호국대룡이 되어 불법을 숭봉하고 국가를 수호하겠다.”라고 원한 것처럼 역사적 과란이 있을 때마다 ‘소리’를 모아 치국하고 ‘소리’로써 모든 일을 해결하라는 호국의지를 만파식적이라는 대보(大寶)를 통해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신라시대 중에서 중정부(鍾頂部)인 단두룡(短頭龍) 위에 세워진 원통이 만파식적이라는 주장도 이에 근거한다.¹⁷⁾ 신라 종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조형물인데, 종소리 자체가 불교적인 의미를 담았다면 원통형의 만파식적은 정치적 의미 곧 호국 의식의 강조라고 이해할 수 있다. 만파식적의 위력을 믿듯이 여론의 방식을 형상화한 원통을 통해 백성의 소리를 최대한 존중하여 불교화한 사레라고 여겨진다. 또 여론도 반드시 좋은 소리만 있으라는 법이 없으니 원통 위로 나쁜 소리는 뽑아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된다. 용당포로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대종천’이라 불려오는데 호국의 종소리 가운데 나쁜 소리는 반드시 원통으로 빠지게 하고, 좋은 소리만 온 국가에 퍼지게 한다는 신라인의 호국정신에서 나온 믿음의 소산이라고 볼

17) 황수영, 「신라범종과 만파식적 설화」, 『범종』, 한국범종연구회, 1982.

수 있다.

결국 해중릉은 통일 초기 최대 성지로 부각된 점이다. 감은사에서 살아있는 용과 해신이 된 용이 법당에서 설법을 동시에 듣고, 이견대에서 용신을 위해 제사와 연악(宴樂)을 거행하였다. 장엄한 극적 드라마의 희락형 여민락이다. 해신의 불국토 묘지성소가 조성되었다. 이에 답례로 만파식적, 흑옥대 등이 주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호국적 신화 상상력은 대중, 악기, 깃발, 문양 등에 크게 작용하기 일쑤다. 문무왕은 통일 치적을 넘어 미래의 영성을 몸소 실천한 말대로 대왕, 용왕으로 각인되었고 후대 지속적으로 수용되었다.

Ⅲ. 신라 해중릉의 가치와 서사전승물의 활용

신문왕의 정치적 의도가 내재된 감은사 일대의 영역화 방식이다. 신문왕도 국왕으로서 상황인 문무왕의 무한한 권능과 숭덕을 기리는 예찬가를 바치고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을 구가한 것이며, 동시에 문무왕의 호국의지를 좀 더 부각시키고 창조적으로 계승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이다. 감은사와 이견대는 국가를 진호하기 위한 중요한 지역에 있었으며, 이 지역은 신라왕 부자에 얽힌 호국용 신앙처가 있던 곳이기도 하다. 통일 후에도 왜는 큰 걸림돌이었다. 동해구 대종천 포구는 동해의 왜적을 경계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곳이었으며 왕권을 강화시키는 성소였다. 이런 동해안 용 신앙처는 자연물-인물상징-사찰창건의 유형을 지니고 있다. 용당포 → 대왕암 → 감은사지, 태화강 → 암용바위 → 태화사지, 개운포 → 처용암 → 망해사지 등의 유형은 모두 성소의 신성성을 강조하고 있다. 모두 창사담으로 작용한 자연물은 지리적 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한 신라인의 사유방식에서 성소로서 인위적으로 대체되어 이야기화한 면을 지니고 있다.

신라인들은 문무왕의 화룡을 긍정하였고 용이 되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믿었던 것이다. 실제로 위정자인 신문왕은 손수 정치적 목적을 전제로 신성화하는 행위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용이 나타난 것을 보았던 장소를 '이견대'라고 하였고, 그 용이 쉬어갈 용혈(龍穴)을 마련하였으니 그곳이 감은사의 금당 밑이었다. 용혈은 『감은사 발굴 조사보고서』에서 밝힌 '1.8척 전후의 공간'인 것이다. 용이 실제한 형상화를 통해 호국사상을 분명히 하였고, 이를 정치적 이념으로 확대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을 통해 볼 때 신문왕은 화룡된 문무왕을 이견대에서 만나 기쁨을 나누었으며 동시에 부왕을 위해 제사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대왕암가」가 아닌 「이견대가」이고, 그 내용은 부왕에 대한 찬양과 추모의 정을 표현하였다. 이 노래는 후대로 내려오면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신라인의 집단적인 가치에 의존하여 민요화해 갔을 것이다.

또 감은사에서 신문왕은 여러 날 자면서도 금당 밑을 통하여 내사한 문무왕을 자연스럽게 만나 법당에서 법문을 부자가 들었던 것이다. 추모와 더불어 정신적 감화를 받았던 것이다. 그 이후에는 왕들은 문무-신문왕의 은덕을 흠모하고 기린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이 일대를 성역화함으로써 군사적인 위상을 높인 동시에 정치적 이념을 호국화한 공간이기도 하다. 만파식적 설화의 내용도 국민적 여론 곧 소리으로써 호국하라는 뜻을 다른 모티브와 관련해서 상징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주술성까지 내포된 종이나 만파식적을 통해서 믿는 소리으로써 여론화한 정치적 기능을 앞세운 이야기이다. 따라서 이견대와 「이견대가」가 불려진 동해구는 신문왕이 문무왕을 추모하고자 의도화된 해신 성소이면서 통일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정치적 배려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만파식적 설화 중에서 감은사 창건 부분만 제외하고 읽어보면 서사의 주동인물은 신문왕이고, 소재는 역시 ‘만파식적’임을 알 수 있다. 지배적인 모티프는 용의 도움을 받아 대나무로 만파식적을 만들었으므로 호국의 신력을 발휘하였다는 사실이다. 곧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이 이견대와 감은사를 짓고 부왕이 용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국가 수호의 신기인 만파식적을 얻었다는 상황을 호국용 관념에 따라 전개시키고 있다. 용을 통한 신비체험은 통일신라의 제2 건국신화로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왕권의 정통 강화에 얽매인 ‘인위적인 설화성’이 강한 점이다. 용 신앙의 관념을 왕권 강화에 활용하여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한 대표적 사례라고 여겨진다.

신문왕에게 ‘무가대보(無價大寶)’를 부여하겠다는 ‘성(聖)’의 계시를 나타내고 있다. 신성 예시 단락으로서 보물을 받으리라는 것을 미리 알린다. 알리는 인물은 ‘해관’과 ‘일관’이다. 해관과 일관의 정체와 그들이 갖는 당대의 정치적인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만파식적 설화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신문왕이 동해로 행차하게 되는 첫 번째 동기를 마련한 인물이 박숙청인데, 그는 해관으로서 ‘파진식(波珍噺)’이라고 했다. 파진식은 바다를 지키는 벼슬이라고 생각된다. 해관이라고 한 점도 그렇지만 ‘파진’은 ‘바들’에 대한 음차표기이다. ‘바들’은 중세어 ‘바를’의 고형으로 현재의 바다를 뜻한다. 또 『삼국사기』권 38의 “波珍滄 一云海干”이라고 한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런 점에서 박숙청은 감은사 일대의 동해구를 지키는 관리로서 문무왕릉인 대왕암을 관장하는 ‘제관’이라고 생각한다.

이 해관의 보고에 대하여 ‘점(占)’으로 해석하여 신문왕에게 말한 인물은 일관

김춘질이다. 작은 산이 오락가락 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문무왕과 김유신이 대보를 내린다고 계시하는 일관임을 주목하게 된다. 이러한 일관의 설명은 신문왕으로 하여금 동해변으로 ‘행행(行幸)’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관은 왕의 측근에 늘 있으면서 징후나 예조 및 사건의 해결 방법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신탁과 정치의 양면성을 수행하는 사제자라고 파악된다. ‘짐을 친다’는 점에서 무속적 역할이 강한 것으로 보이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의도화된 자문을 왕에게 하고 있다고 보인다. 동해변의 기이한 현상에 대하여 일관은 ‘작위적’인 풀이를 함으로써 감은사와 이견대에 나아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관과 일관의 역할로 보아서 신문왕의 동해구 행차는 단순한 순방이 아니라 통일 후의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제의적’ 가행이 아닌가 한다. 신문왕이 돌아가신 부왕을 보려고 대를 쌓고 백일기도를 올렸더니 화룡한 부왕이 나타났다는 현존 전승하는 설화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문왕이 이견대에 ‘가행’하여 보고된 ‘작은 산’을 보았고, 다시 사자를 통해 “대나무가 낮에는 둘이었다가 밤에는 하나로 합쳐진다.”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있다. 대나무의 신이성을 강조하는 문맥이다. 그 사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사연은 ‘용’에 의해 해명되어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성잠복의 서사부분이며, 대나무가 사건의 중요한 소재로 부각된 것이다. 또 신문왕은 감은사에 유숙했다는 것을 앞세우고, 다음날 오시에 대나무가 합쳐지며 천지변동이 7일 동안 일어남으로써, 감은사 유숙 자체가 단순히 잠을 잤다는 사실이 아니라 돌아가신 문무왕에 대한 의식 - 수류대제 - 을 행하면서 소망을 기원하는 의례를 행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더구나 대나무의 신이한 조화를 풀기 위해 신문왕의 고뇌와 부왕에 대한 회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7일 동안의 시간으로 볼 때, 수류대형 용신굿이다. 신화의 세계에서 말하는 혼돈의 과정인 동시에 생성의 시간단위인 것이다. 신문왕이 직접 용을 통해 신비한 경험을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문제가 되었던 작은 산에 올라가 용을 만나는데 용이 ‘흑옥대’를 바치는 장면이다. 용이 바친 흑옥대에 대해 묻지 않고, 신문왕은 그동안 궁금했던 ‘대나무의 조화’에 대하여 묻고 있다. 흑옥대는 용의 정체성을 알리는 정도에 머물고, 신문왕에게 또 다른 신비적 체험을 보여주는 소재의 복선에 불과하다.

신문왕이 용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것은 대나무의 신이성에 대한 해명이다. 용은 신문왕에게 ‘소리’로써 천하를 다스릴 것을 말하고, ‘피리’를 만들어 분다면 나라의 평온을 가져오리라고 예언하고 있다. 이때 ‘피리’는 단순한 대나무에서 신물(神物)로서 자리하게 된다. 피리를 무당의 입무 과정에서 오는 신물로써 보는 무속적 고찰을 전제로 하여, 환웅의 ‘천부인’과 동일한 성격으로도 보고 있다.¹⁸⁾ 또 “천부인

세 개란 왕권표상·통치력 표상의 주적(呪的) 상징물”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점에서 만파식적은 신문왕의 신물 획득의 상징징표하고 입증할 수 있겠다. 흑옥대를 바치면서 만파식적의 영험까지 해석하고 있는 용의 정체는 무엇인가. 용은 만파식적의 조화에 대해 예언하기를 국가의 평온을 이루게 되리라 하면서 신문왕의 통치력에 힘을 주는 신물임을 강조하고 있다. 용은 흑옥대를 바쳤다는 점에서 고대 주술사에 가까운 인물이면서 정치에 관여하는 자임을 내세울 수 있다.

용에 대한 기술 자체가 불교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나 민강신앙적인 일면이 내포되었으리라 보여진다. 일연이 지닌 무불의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을 한 마디로 단정할 수 없으나 그의 역사의식으로 보아, 용신당의 무속적 발달과 불교문화의 고양을 아울러 말해주는 감은사 이야기는 신선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용에 대한 신문왕 당대의 발상은 ‘무열왕계’ 왕권의 정통성 확보에까지 의도화한 일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점은 설화의 유포에 대한 정치적 목적과 일치한다. 역사적 근거로 김상현은 ‘김흠돌의 난’을 들어서, “무열왕권에 대한 반발을 극복하고, 신문왕이 일련의 정치적인 개혁을 추진하면서 중대 전제왕권을 확립해 간 것.”¹⁹⁾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용에 대한 성격은 신문왕이 오색의 ‘금채와 금옥’으로써 용에게 보답했다는 사실에서 비현실적인 세계에의 발상이 아니라 현실적이면서 세속적이기도 하다. 현실적인 인물이면서 신과 인간을 영매할 수 있는 제의적 수행자로 이해할 수 있다. 신은 다름 아닌 돌아간 문무왕과 김유신이며, 그들의 정신을 대변하는 중간자인 것이다. ‘신라 이성(二聖)’으로 추앙받던 문무왕과 김유신의 업적을 신문왕으로서 계승해야 하고, 그러한 정치적 의미는 여론화되어야 했다. 그러한 신문왕의 정치적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 일관과 용인 것이다. 따라서 용은 신문왕이 이성(二聖)의 권능과 위덕에 힘입어 ‘호국하고자 하는’ 의도에 작용된 신성시화의 매개자로 보여진다. 끝에 “산과 용이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신비체험이 일단락되었음을 뜻한다. 서사전개로 볼 때 신력 현시를 위한 ‘정화’ 단위로써 이 설화의 주체자와 수용자 관계에서 목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흑옥대를 통해 신비체험의 또 다른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신문왕의 체험한 일

-
- 18) 장장식, 「만파식적설화의 연구」, 『미원 우인섭선생 화갑기념논문집』, 집문당, 1986, pp. 13~330.
이구의, 「萬波息笛에 나타난 神異性攷」, 『語文學』 75집, 한국어문학회, 2002, pp. 295~319.
- 19) 김상현, 「만파식적 설화의 형성과 의의」, 『한국사연구』 34집, 한국사연구회, 1981, pp. 26~27.

을 다시 강조함으로써 흑옥대의 성격을 설명하는 서사단위이다. 물론 비현실성을 지녔지만 이공이 왕의 신비체험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성(二聖)의 호국정신’을 정치적으로 계승하고 지속화하는 면의 또 다른 표현이다. 정치적인 함축성은 흑옥대의 신체 현시를 통해 신문왕 이후의 왕들에게 계승되도록 하는 의도화의 문맥인 것이다. 만파식적의 신비성은 앞뒤 단락의 개연성에 따라 부각되는데, 흑옥대는 만파식적의 정치적 목적화에 부합시키는 소재다. 김영태는 태자 이공이 효소왕이지만 신문왕 2년(682)에 태어나지 않았으며, 이때 달려왔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²⁰ 역사적인 진위와는 무관하게 후왕들의 지속화된 의도를 나타내는 문맥이라고 해석함이 무난할 듯하다. 용이 바친 흑옥대를 통해 ‘진룡’으로서 승천하는 상황 전개는 피리를 만들어 불면 국가의 이적을 드러내리라는 용의 신통력을 여론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장치다. 당대 위정자의 철저한 정치적 전략은 왕자까지 끌어오는 데까지 작용한다.

만파식적의 ‘신력 현시’를 구체화한 대목이 보인다. 만파식적의 위력은 고대인들이 신물을 통해 국가의 위기나 천재지변을 극복해 가는 모습에 대하여 주술적 성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물의 주술성은 조상의 덕을 통해 국가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위정자의 정치적 성향과 부합하고 있다. 이성(二聖)의 위업을 통해 호국실현과 왕권강화라는 의미를 달성하고자 하는 신문왕과 그 이후의 신라왕들의 음우의식(陰佑意識)을 대변하는 서사단위인 것이다. 대나무가 “晝爲二夜合一壺”한다는 사실과 피리를 만들어 부니 “兵退病愈, 旱兩兩晴, 風定波平”한다는 사실에 집약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만파식적은 ‘국보’로서 국가의 위기 때마다 ① 병란을 물리치고, ② 병고를 퇴치하고, ③ 가뭄을 막고, ④ 장마와 바람 및 해일 등을 조절한다는 제의적 기능을 갖고 있다. 만파식적은 문무왕과 김유신의 존재를 상징화한 신물이라면, 피리를 분다는 것은 신목 곧 대나무에 내린 신체 현시를 제의화하는 모습이다. 이성(二聖)에 대한 제례의식은 통일 과정의 위업을 확인하고 왕통을 정당화하는 결속을 다지는 국가의례인 것이다.

‘천존고’에 대한 정치적 기능을 해명해야 하겠으나 천존고는 신물을 두는 장소라는 점에서 제의 공간이라고 보여진다. 신라왕궁에서 신성시하는 자리로서 ‘월성’의 통치력을 대변하는 상징적 처소이며, 이 월성의 천존고와 토함산 성지-이건대-대왕암으로 이어지는 호국의식의 입체적인 표현이 아닐까 한다. 당대 신라인의 왕경을 중심으로 사각 방위의 사고 중에서 동향의 정신적 궤적의 한 형상화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만파식적의 신력 현시는 천존고 중심의 제의 행사를 통한 통치

20) 김영태, 「만파식적 설화고」, 『동국대학교논문집』 제11집, 동국대학교, 1973, p. 45.

권의 강화와 호국의식의 지속화를 보여주는 의도화한 ‘증시’ 단위라고 여겨진다. 또 신문왕 당대로만 이야기하는 방식이 아닌 효소왕과 원성왕대로 지속되는 화법은 정치적 의도가 얼마나 크게 작용되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면이다. 이상에서 일관과 용을 주목하면서, 문맥의 각 부분이 서로 상관하는 입장과 긴밀한 전체 구조의 총체성을 염두에 두었다.

앞 장에서 논의한 대로 대왕암 전승의 내용은 여론 형성이라는 차원을 전제로 기존의 용신앙을 호국불교화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었다. “감은사를 창건하고서부터 일어난 일이므로 감은사가 만파식적 설화 배경의 원인”이라면, 신문왕의 감은사가행을 통한 신비체험의 기술물이다. 의도화된 가행을 통해 만파식적의 신물을 획득함으로써 당대인과 그 후세인에게 지속시키고자 하는 호국에의 정치적 형상화한 방식이다. 통일의 의미를 인물 중심의 성소 만들기와 관련시켜 이념화한 발상의 설화이다. ‘성물’로서 만파식적은 후대 문학인에 의한 수용 역시 대나무가 영험한 신목 이미지이고, 피리로의 전환은 호국적 신성성성을 부여하였던 점이다.

만파정에. 예전에 대가 있었는데. 우에 보면은. 우에 보면은 뵈이고, 우에 보이면 안 뵈이는데. 그거를 인자 맨들어 가지고 통소로 불면 아주 그만. 해결이 되었다고.²¹⁾

구비설화에서도 용의 머리인 섬에서 나무를 베어 만든 옥통소를 불어 풍량이 종식되었기 때문에 모든 파도를 잠재운다고 해서 만파식적이라고 강조하여 신라왕의 신력을 아직도 믿고 있는 모습이다.²²⁾ 제의의 신화적 문면이다. 문학적 수용과 구비설화의 전승에서 볼 수 있듯이 만파식적의 신이성은 이 이야기가 고대로부터 전승하는 힘이면서, 신라 당대의 정치적 권능을 나타내었음을 보여준다. 정치적 이념 만들기가 강조되어 호국용으로서 해신은 한국사회에 본격적으로 뿌리 내리지 않았나 한다.

소리를 강조하는 이념을 담고 있는 이 설화는 통일신라의 새로운 기틀을 다지고 이를 무궁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위정자의 의도적인 ‘통일서사시’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부합하여 성소 축조가 경주 왕궁[반월성]→토함산→이견대(→감은사)→대왕암으로 표적되어 국토경영이 전개되었다. 대왕암 - 만파식적이라는 새로운 국보를 통해 천하태평의 유지라는 호국적 기능을 함의한 통일영웅의 ‘신화’라

21) 제보자, 김상기(남, 89세,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대한노인회양북지회), 2012년 03월 31일.

22) 『한국구비문학대계』 7-3 경북 월성군편, 1980, 감포읍 설화 35, pp. 720~721.

고 말할 수 있다. 해중릉 조성사업, 감은사 불사, 이견대 제의공간 마련 등은 통일 초의 국가 프로젝트였다. 해중릉 실체는 이견대와 만파식적을 통해 신비감을 더했고, 국토 성소 만들기의 모형이다.

불교에서 밀교의 힘을 빌려 당군을 벽파한 명랑의 문두루비법(文豆婁秘法), 외적의 침입을 미연에 알려주는 만파식적 등 신라불교의 호국적 범력성, 주술성, 순례성 등이 작용한 것이다. 실제 일어날 수 없었을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수도 있겠다고 속신화한 문무왕릉, 감은사지, 이견대 등의 증거물을 중심으로 용신궁, 대왕궁을 비롯한 한국 무속신앙이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진행 문무왕 - 신문왕 중심으로 기림사에서 대왕암까지 - 대중천 유역 - 통으로 읽으면, 해신과 국태민안의 길이 보인다. 통일신라관 용신의 성역 현장이다.

최근 문무대왕릉이 바라볼 수 있는 양북면 봉길리에 소재한 봉길해수욕장은 호국용이 되었다는 문헌의 기록과 설화로 인해 10여 년 전부터 전국에서 용왕궁과 용왕제를 지내려는 스님들과 무속인, 신도들이 찾는 기도도량의 명소가 되었다.²³⁾ 용왕제 성소와 풍수로 기가 센 곳이라고 한다. 문무대왕릉은 문무왕의 바다 속 무덤이다. 봉길리 동해안에서 200m 떨어진 바다에 있는 수증릉인 셈이다. 자연 바위를 이용하여 부분 인공가미로 만든 것으로 그 안은 동서남북으로 인공수로가 조성되었다. 수면 아래에는 길이 3.7m, 폭 2.06m의 남북으로 길게 놓인 넓적한 거북모양의 돌이 덮여 있다.²⁴⁾ 신비의 해신 상징처인 것이다.

이처럼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용담리 - 봉길리 신라호국유산이다. 대왕암 관련 해중신화로 해신형 호국룡 상징을 드러낸다. 신문왕의 호국의지가 문무왕의 연고 장소성을 통해 더욱 확고해진 측면이 있다. 그 자체가 매력적인 해양문화콘텐츠의 소스를 제공한다.²⁵⁾ 아버지 해신과 아들 용이 성취한 스토리텔링이다. 일찍 만들어진 해신 - 용신의 중심지로 오늘날 테마파크인 것이다. 최초 국가경영 호국공원, 호국성지로 평가된다.²⁶⁾ 오늘날 다만 지금은 유적과 감은사, 이견대의 김씨 후손측 제사와 구전설화 등만 전승된다.

가치창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동해, 남해, 서해 걸쳐 이만한 해양 관

23) 제보자, 최신웅(남, 78세,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2012. 4. 1. 현지조사(최명환 공동).

24) 경주시, 『신문왕 호국행차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 2010, pp. 103~104.

25) 이창식, 「신라인물 문화유산의 문화콘텐츠 개발방안」, 『온지논총』 23집, 온지학회, 2009, pp. 7~41.

26) 안상경, 「문무왕 테마파크 조성 시론」, 『신라문화』 42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3, p. 285.

런 상상력과 정신소가 녹아있는 곳도 별반 없다. 경주시 양북면 용담리, 봉길리, 그리고 감포읍 대본리 일대는 감은사-용소-이견대-대왕암 이야기와 유적을 묶어 스토리텔링하여 역사문화공원화의 특구를 제안한다. 이 일대가 최적지다. 해중릉 조성 과정을 영상으로 복원하여 전시로 체험화해야 한다. 문무왕축제 차원에서 신문왕대 나라용왕궁인 대왕수륙대재를 복원해야 한다. 본격적인 해중릉-대왕암 융합역사문화관 만들기 위한 자원 확보와 지역민 중심의 피칭워크숍 실천이 필요한 까닭이다.

신라 통일 완성의 존재감으로 동해에서 신령의 생명을 얻은 문무왕은 해중릉의 물적 증거로 신격화된 인물이다. 해중릉의 문화유산적 가치는 바다 영토권 인식과 민중의 호국정신을 심어준 측면이 있다. 해중릉-대왕암 조성에 대한 통섭적 시각에서 검증이 필요하다. 21세기 문화감성시대는 문화콘텐츠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트렌드이다. 문화적 가치를 브랜드화하는 스토리텔링 마케팅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추억과 꿈이 경제적 가치를 창조하는 시대로,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스토리텔러가 지역사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²⁷⁾ 경주시에서 이러한 시각에서 지역 활성화의 최적지가 양북면 봉길리 중심의 문무왕 대왕암-이견대 일대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사이 경주문화엑스포 등이 시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외곽문화권을 고려하여 경주 동해 월성문화구역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여 신라문화권의 관광향수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앞으로 신문왕 행차 길의 문화적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경쟁력이 있다.²⁸⁾ 용의 축제 기획도 이러한 역사적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²⁹⁾

‘신라학’ 또는 ‘경주학’ 차원에서 창조, 통섭, 감성의 다면적 조화를 강조하며, 문화와 경제를 접목시켜 통일신라의 꿈을 21세기 한류와 통일한국으로 집약하는 가능성을 신라 동해 경영에서 찾아보자는 것이다. 경주문화엑스포-앙코르, 이스탄불 연계-의 지속적 확장 곧 문화유산 창조도시를 위해 신라문화유적콘텐츠를 이견대와 대왕암 스토리텔링 제안처럼 단계적으로 다목적 피칭워크숍이 필요하다. 신라문화자원의 세계화, 명품화, 생명화 등 본격적인 것발을 올려야 한다.

스토리텔링의 영역에는 특별 영역을 무너뜨리고 즉각 반응이 가능하고 기존 가치를 넘어서고, 탈국가화로 이행 때문에 평등주의적 상호 패턴이 우선한다. 이에 잘 부합하는 코드가 스토리텔링을 통해 문화적 공감대, 연대감을 만들어가는 데서

27) 이창식, 「지역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 전략과 가치창조」, 『어문론총』 53호, 한국문학회언어학회, 2010, pp. 50~51.

28) 경주시, 『신문왕 호국행차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 2010, pp. 100~104.

29)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 『양북면 중장기 발전 방안』, 2007, pp. 127~129.

찾을 수 있다. 신화와 기억, 꿈과 감성, 상상력이 미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삶의 질과 재미를 보장할 것이다. 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 미래학은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저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브랜딩을 위해 집중하고 있다. 지역에 대한 신뢰나 호감을 유발시키기 위해 지역의 특수한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독자적인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대표 문화콘텐츠 발굴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경주, 무엇이 앞으로 브랜드인가. 어느 매체에 비해 관리 비용과 매체 효율이 뛰어난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홍보영상, 포토갤러리, VR, E-Book, UCC,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문화콘텐츠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경주지역의 문화콘텐츠 상품을 홍보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몽땅그리면 단순히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차원에 국한한 홍보를 탈피하여 경주시 지역설화를 스토리텔링함으로써 지역브랜딩을 추구하는 노력이 늘고 있다.³⁰⁾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역설화의 창조기업화가 순기능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최근 세계 관광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관광시장에서는 공정무역 개념의 공정여행(fair travel)이 출현하고 대안관광, 책임관광이니 하는 관광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도 드러나고 있다.

경주는 문화콘텐츠산업 1번지답게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³¹⁾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도 그 동안의 획일적인 유적, 명소관광의 진화모델로 지역관광커뮤니티비즈니스 모델이 관광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문화이모작사업과 같은 문화마을 만들기 - 필자의 '신라학', '경주학' 범주 참고 -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역사이야기의 재미, 감성, 상상력 등을 녹여 팩션형 문화콘텐츠산업을 개발해야 한다. 경주시 양북 역사문화자원도 이러한 맥에서 이해하고 추진해야 한다. 2002경주문화엑스포 이후 창조적 맥락 사업이 적다.

지역마케팅 측면에서도 좋은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광주 문화재단은 문화관광탐험대라는 시민프로젝트를 실행하여 지역의 보물을 찾아내고 이를 책자로 만들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강원도 화천 경우 감성마을 이외수 작가의 분신아바타 이외수가 관광홍보대사가 되어 곳곳의 숨겨진 보물과 만나 트위터와 영상편지로 강원도의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유명인을 활용한 이러한 시도를 셀렘마케팅이라 하는데 사회 유명인사의 명성과 재능을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잠재

30) 안상경, 「지역설화의 애니메이션화 성과와 문제점」, 『인문콘텐츠』 27집, 인문콘텐츠학회, 2012, p. 285.

31) 「영남일보」, 2012년 06월 22일자.

된 관광자원의 대외인지도를 높여나가는 미래형 작업이다.³²⁾

일본에서는 이미 2006년에 중앙정부기구로 관광청을 설립하고 관광마을만들기 사업과 착지형관광사업모델 개발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왔다. 강원도 화천 사람들이 찾아간 곳은 돛토리현의 다이센인근산인지역의 비영리민간기구(NPO)인 다이센왕국이라는 곳이었다. 지난 13년 동안 상근직원 3명이 행정범위를 뛰어넘는 생활권중심의 민간, 행정 등의 관광에 대한 조정과 네트워크화를 추진했다. 또한 체험메뉴 개발, 작은 이벤트, 자전거 대여시스템구축, 드라이브 코스 개발, 인터넷과 무료신문의 발행, 장기적인 지역비전의 수립 등 엄청난 일을 해 왔으며, 그 노력들은 컴퓨터에 저장되어 데이터베이스와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다. 다이센이라는 높은 산을 따라 바다로 드라이브하면서 들으라고 음악 CD를 만들고 사계의 모습을 홈페이지에 담아 1주일에 두 번씩이나 업데이트를 하는 등 열정 자체였다.

배움의 연구포럼도 있다. 화천에서는 2012년 9월부터 산천어아카데미라는 지역에서 미래의 화천을 고민하는 리더들의 공부하는 모임이 3개월 동안 주경야독의 형태로 계속되었고 일본의 선진지 견학까지도 다녀와 많은 배움을 가졌다. 화천 사람들이 이들의 노력에 자극받아 지역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조만간 화천에 이러한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란 희망을 가졌다. 학습과정에서 워크숍을 통해 지역비즈니스의 모델로 막걸리축제, 오토캠핑장 운영, 산채나물 활용, 마을축제 등의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특수를 고려하여 평창은 태백산맥고원 대관령을 기반으로 긴 겨우살이를 했던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세계인들에게 보여주고 이를 체험상품으로 만들어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것이다. 관광트렌드의 한 축은 인문학적인 감성을 바탕으로 감동체험을 만들지 못하면 안 되는 교육과 즐거움이 결합한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관광으로 이미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관광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한다. 도내에서도 공정여행, 지역관광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한 창업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다. 이미 꿈을 꾸고 현실화하려는 노력자체에 우리는 박수를 보내야 할 것이다. 이들의 노력이 지역주민이 만들어낸 유기농농산물로 차린 싱싱한 밥상, 단순한 잠자리 제공보다 교류에 초점을 맞춘 도심형 게스트하우스, 지도 하나만 봐도 어려움 없이 찾아갈 수 있는 지역 걷기지도의 발간 등 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까지도 고민했으면 좋겠다. 지아에스의 스토리마케팅 네비게이션 시도가 필요하다. 관광트렌드는 행정경계를 뛰어넘는 광역지역의 연계를 통한 관광정보의 수집

32) 충북 충주 고도연의 아침편지와 류근모 열명의 농부 쌤채도 이에 해당한다.

분석, 관광콘텐츠의 개발과 브랜드화, 관광정보발신과 상품판매,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지역관광커뮤니티비즈니스를 요구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지역관광커뮤니티비즈니스와 만나는 관광이 되고 그 소득은 그대로 지역에 남고 관광객은 감동을 마음 속에 담고 가는 착한관광이 되고 재방문이 되는 선순환구조이다. 수요자는 고향, 다시 머물고 싶은 마을을 희망하고 있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각광받는 남이섬에 ‘어머니나라공화국’을 테마로 대형 사업이 진행된다. 남이섬 대표 강우현은 연간 국내외 230만 명의 관광객 유치로 각광받는 남이섬 관광휴양지에 국내 충주시 등 10개 지자체와 나미나라 공화국을 하나로 묶어 추진하는 상상나라 국가연합(Uni Plan) 관광지를 개발한다. 이를 위해 2012년 12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강우현 등과 충주시장, 광명시장, 청송군수 등 전국 10개 자치단체장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대표적 지역관광 브랜드를 만드는 한국 10대 상상 관광지 상상나라 국가연합 공동 선언을 하였다. 강우현은 이처럼 상상과 예술로 남이섬을 디자인해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최근 국내 각 지역의 관광브랜드 공유로 네트워크 관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관광을 상징할 대표적 투어라인 구축을 위해 한국 10대 신 관광지를 조성키로 하고 1지자체 1브랜드 원칙으로 충주시 등 모두 10개 지자체의 참여를 확정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충주시는 정(情)을 주제로 어머니나라 공화국을 건설하게 되며, 충주창조 아카데미로 충주어머니학교 운영을 통해 콘텐츠를 하나씩 만들어 완성하고 지역 주민과 충주시가 참여한 가운데 가나안농학교와 동일한 어머니 교육의 산실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남이섬 강대표 등 관계자 15명과 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머니나라 공화국 사업을 위한 현장을 방문한 뒤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와 관광객 숙식 등 절차 협의를 가졌다.

이러한 타 지역 사례와 비교하여 경주시는 신라 천년 고도라는 상징성처럼, 다양한 지역문화유산을 지니고 있다. 천 년 이상 문화유산 신라왕조의 수도였기에 남산을 포함한 경주 주변에 다양한 역사건축물과 불교유적, 그리고 각종 기념물들이 세계적이다. 오늘날 경주시의 문화유산은 그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불국사, 석굴암, 양동마을을 비롯해서 경주시 자체가 경주역사유적지구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세계문화엑스포가 경쟁력이다. 그러나 주민 중심의 창조기업 개념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관련한 학술회의 등이 인문학 자원 발굴을 토대로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활용성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답사, 집단포럼, 카페 공유, 수요자 소통과 교육, 관련 기관 공감 등을 동시다발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³³⁾

경주시와 양북면 지역의 지역성을 고려하면서, 원자력 유치 강점에 상응할 수 있는 지역의 값진 문화자원이다. 경주시의 이러한 자원이 소재한 지역과 연계해서 관광자원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대상으로 한 문화콘텐츠의 소재 여부는 지역의 마케팅 전략이자, 관광객을 모으는 계기가 된다. 한수원의 지역 상생 발전론의 모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매우 값진 문화학술사업이다.

양북면 문화산업론은 현재 트렌드에도 잘 부합한다. 통일 브랜드는 감동의 기대감과 탐방의 흥미성을 동시에 주는 팩션관광대안론을 만든다. 경주시내에 비해 덜 관광네트워크된 곳에 통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새롭게 브랜딩될 수 있는 강점이다. 용이 된 문무왕이라는 이야기의 1,300여 년 전 소스를 소재로 해 스토리텔링화하는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와 연구자,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 - 문화산업적 강점, 동시다발 - 는 피칭워크숍이 요구된다. 이러한 창조기업식 공부포럼의 이상적인 도시가 경주시이다.³⁴⁾ 이 프로젝트를 통해 경주시 문화창조도시 세계일번지가 되기를 바란다.

통일, 해양, 소통 화두에 걸맞는 토함산, 기림사, 골굴사, 대종천, 감은사지, 이견대, 봉길리 대왕암 등을 역사테마의 길이다. 경주시에서 시도한 바 있다. 테마길 조성 사업은 일상생활의 시공간에서 벗어나 걸기를 통해 생활문화와 정신문화를 이어주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10년에 조성된 신문왕 호국행차 문화생태 탐방로는 이정표, 문화유산 안내판, 쉼터 등의 설치를 통해 테마가 있는 길을 개발할 목적으로 진행한 사업이다. 이는 2007년 제주 올레길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테마길 조성 사업들과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이제 가치창조 중심의 브레인 스토밍(brain storming)이 필요하다.

신라역사문화의 관광자원화를 모색함에 있어 철저한 기초조사 및 관련 콘텐츠물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 경주 지역문화의 기초조사와 관련 자료의 철저한 수집, 정리, 분석에 주력해 왔다. 이외 소스 핵심 키워드의 인물, 정신, 학문, 문화재, 의례, 특산물, 향토음식, 자연경관, 레저공간 등의 문화적 자연적 환경자원을 거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양 민속과 설화에 대한 필자를 포함한 조사단의 현지조사 연구의 경험 등을 통합하여 진단하는 시각이다.³⁵⁾ 문화관광프로그램의 개발

33) 자료 조사 및 검증, 구술현장 조사 및 면담, 선진지 진단 및 지역현안 연계 검토 등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였다. 차별론, 목숨론, 온리론이 융복합적으로 스토리텔링마케팅이 되도록 하였다.

34) 경주시가 문화창조도시 관련 단체, 기관, 연구모임 등을 묶어 일자리 만들기 차원에서 신라문화콘텐츠-5개 분야 천 개 항목 개발 창조기업 육성책을 기획하기를 주문한다. 문화콘텐츠포럼과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

에 수요층의 요구와 수요층의 수준에 부합하는 차별화를 고려해야 하며, 수요층의 수준이나 기호에 맞추어 감성교육형, 차별관람형, 휴양체험형, 킬러레저형, 문화복합형 등으로 구성하고 나아가 문무대왕축제³⁶⁾ 및 이벤트, 지역문화상품 등과 연계성을 검토해야 한다.

한류 경쟁에 힘입어 경주-신라 원형자원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고유 문화유산의 가공과 재창작 사업은 새로운 대세이다. 이러한 스토리텔링 사업은 경주문화엑스포 문화현장에서 큰 공감을 형성한 바 있다. 세계인이 감동한 만큼 지갑을 열 수 있도록 신라 이야기창고가 학제간의 통섭으로 마법의 돌처럼 호기심과 환상성을 유인하고 있다. 문무 용신화의 소스콘텐츠로 여러 유형의 상품을 개발함(SMU)으로써 지속가능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신라유산의 원형과 변형 개연성, 전통과 창조의 팩션(faction)을 고려하여 제작해야 한다. Story Finding(검증과 생산의 측면), Story Telling(가공과 유포의 측면), Story Storing(반응과 평가의 측면)을 동시에 구상해야 한다. 이게 경주시 문화창조도시-향부론(鄕富論)-로 가는 길이다.

앞서 제기한 동해 신라유산의 문화콘텐츠의 역기능을 배제해야 한다. 아직도 문화향수의 목마름에 농촌과 도시를 이원화하려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 신라문화의 회귀성, 경주문화의 고향성을 동시에 살리자는 것이다. 울산, 대구, 포항 사람들이 오히려 역사문화의 감성과 상상력을 즐기려 이곳으로 나들이를 오도록 해야 한다. 금상첨화로 양북면 일대마다 천년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원형자원과 자연경관-일본 교토, 중국 서안, 터키 이스탄불 등과 경쟁-이 있다. 지역민들이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경쟁력 확보와 관광문화 기반이 조화를 이룰 때 천년 문화유산도시 구성원으로 자부심을 지니게 될 것이다. 경주시, 수자원 지역상생 관련 문화정책의 전환은 이러한 일면까지 세심하게 배려할 때 지속가능성이 있다. 지역민이 신라-경주문화 미래 청사진에 대해 공감하는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양북 지역민은 이를 마더마케팅으로 스토리텔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왕굿유산도 긍정적으로 관광자원화와 지역활성화 문제를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 원형성과 지역성 위주의 전승맥락화 노력 등을 동시다발로 체계화할 시기가 되었다. 유형의 대왕암 역사유적과 무형의 수록재, 용신굿을 상생시켜 문무대왕축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라, 고려, 조선, 최근 동해안 별신굿의 계보화(원형

35) 이창식, 「설화 속의 해양신 유형과 신격화 의미」, 『한국 해양신앙과 설화의 정체성 연구』,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9, pp. 243~274.

36) 강석근, 「해중릉 주변의 민속신앙과 문무대왕문화제의 필요성」, 『온지논총』 37집, 온지학회, 2013, pp. 329~357.

론), 대왕굴 대본에 대한 적층적 추이의 연행화(변이론), 놀이콘텐츠 확보와 진송 마을 확보 등 지원화(활용론)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한 경주시, 경상북도, 문화재청 차원의 재정 지원과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³⁷⁾ 경주 동해안 신라해양유적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문화창조산업 프로젝트가 요구된다.

IV. 맺음말(제안)

신라 해중 문무왕릉을 둘러싼 원형서사에 대해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활용 문제를 제기해 보았다. 「이견대가」는 신문왕이 돌아가신 문무왕을 추모하면서 용신으로 화신한 아버지 문무왕과의 만남을 기뻐하여 부른 악장형 향가다. 추모의 정을 담은 제의가의 성격을 지녔다. 해중릉에 모셔진 문무왕을 제사하는 장소는 ‘이견대’이며, 그 곳을 연구자는 문헌의 문맥과 성소의 공간적 차원에서 살펴본 결과 복원된 장소가 아닌 이른바 ‘덤북재’란 산정(山頂)이라고 추정하였다. 이견대 발굴에 나타난 문제점을 전제로 이견대 재검증을 요청한다. 감은사 금당을 중심으로 한 성소(聖所) 축조 디자인이 경주 왕궁[반월성]→토함산→이견대(→감은사)→대왕암으로 표적되어, 이것들은 문무왕의 호국정신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의도-통일초 신문왕 전략-에서 나온 정치적 상징적 공간이라고 보았다.

호국릉이 동해를 지키면서 왜적을 막을 구실을 한다는 것은 오랜 신앙일 터인데 창사담에 있어서 불교의 용과 복합되었다고 일연은 강조하였다. 용담, 용연, 용신, 용신굴, 용왕굴, 호국용왕대재 등도 이에 연원한다. 특히 이견대와 감은사의 순행형 국가의례를 복원해야 할 것이다. 그 중심 원형서사에 「이견대가」와 만파식적 설화와 수록공연 항목이 있다. 용신을 이용한 성역화는 정치적 권능을 강화한 역사적 문맥이며, 조상-두 통일영웅, 문무왕과 김유신-의 음덕을 통한 만파식적의 신물화는 사모지사의 제의성을 바탕으로 한 여론화의 방식이라고 보았다. 무엇보다 ‘소리’라는 의미를 앞세움으로써 주술적인 기능을 통해 국가의 안정을 소망하는 위정자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능을 종두의 원통-용신통-으로 형상화하여 대나무의 신목화 과정을 문화적으로 정당화하여 계승시키고 있다. 대나무는 신화의 우주나무에 다름 아닐 것이다. 만파식적의 형상화는 동해

37) 세부 활용 계획은 『경주시 양북면 문화자원의 복원과 활용 방안』(동국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2)에서 확장하여 다루었다. 향후 해양실�크로드 교류사업도 이러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룡의 영적 모습인 동시에 사중(寺中)의 구멍 - 龍穴 - 을 통해 현실세계와 교류하는 불교화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소성과 서사의 가치성을 고려하여 경주동해문화유산의 창조활성화 방안 핵심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신라유산창조콘텐츠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 둘째, 경주 - 신라 역사문화자원(특히 해양 관련)의 팩션형 스토리텔링 사업이 단계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기존 추모제, 대왕문화축제, 대왕굿 등을 문무대왕 축제로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오해, 왜곡, 편견 등에서 벗어나 21세기형 경주시 지역문화, 신라문화 복원으로 수렴하고 진전시켜야 한다. 넷째, 감은사 - 대왕암을 전제로 아버지-아들의 이야기 키워드를 살려 문화예술이 상생하는 테마길, 테마파크, 테마박물관, 테마문화마을 등을 융합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불교문화유산 - 호국, 기림사 특산품 원형 발굴, 통일, 바다신 등 - 의 킬러콘텐츠 제작에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여섯째, 경주시 양북면 문화유산의 항목별 복원과 재현, 창작의 단계별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의 공동선 목숨론을 추구해야 한다. 일곱째, 원자력 관련 재화 지원혜택을 활용하여 경주시답게 세계문화창조도시 모형-온리온-으로 경주 동해 호국문화감성공원 - 해양문화자원화 - 으로 브랜딩하여 해외 후발국가에 수출하자는 시각이다.

[논문투고일 : 7월 19일, 논문심사완료일 : 8월 2일, 논문게재확정일 : 8월 8일]

[참고문헌]

1. 기본사료

-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2. 저서 및 단행본

- 강석근, 이창식 외, 『경주시 양북면 문화자원의 복원과 활용 방안』, 동국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2.
- 조철제, 『국역경주선생안』, 경주시·경주문화원, 2002.
- 『한국구비문학대계』 7-3 경북 월성군편, 1980.

3. 논문류

- 신종원, 「대왕신앙」, 『삼국유사 새로 읽기(1)』, 일지사, 2004.
- 강석근, 「해중릉 주변의 민속신앙과 문무대왕문화제의 필요성」, 『온지논총』 37집, 온지학회, 2013.
- 김영태, 「만파식적 설화고」, 『동국대학교논문집』 11집, 동국대학교, 1973.
- 안상경, 「문무왕 테마파크 조성 시론」, 『신라문화』 42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3.
- 안상경, 「지역설화의 애니메이션화 성과와 문제점」, 『인문콘텐츠』 27집, 인문콘텐츠학회, 2012.
- 이창식, 「설화 속의 해양신 유형과 신격화 의미」, 『한국 해양신앙과 설화의 정체성 연구』,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9.
- 이창식, 「신라인물 문화유산의 문화콘텐츠 개발방안」, 『온지논총』 23집, 온지학회, 2009.
- 이창식, 「이견대가와 ‘만파식적’설화의 성격」, 『동국어문논집』 4집, 동국대 국어국문학과(경주), 1991.

신라문화 44 (2014. 8)

- 이창식, 「해신과 해중릉의 실체」, 『2012 제3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자료집』, 목포대학교도서연구원 외, 2012.
- 황수영, 「신라범종과 만파식적 설화」, 『범종』, 한국범종연구회, 1982.